

■ 정부, 오늘 마트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결정 관련 입장 발표

설 연휴 눈앞... “어찌할까”

법원 14일 서울시 한해 정지... 이외 지역은 유지
각 지자체 정부 방침 촉각... 도 “정부 결정 대로”

정부가 17일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하면서 제주도 방역당국이 정부 발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만약 정부가 지역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이들 업종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 이를 따르기로 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법원의 결정과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패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취할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

다”며 이들 업종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 형평성 논란은 상점·마트·백화점 방역 패스 효력 정지 결정이 서울시에 한해 내려지면서 불거졌다. 애초 집행 정지 신청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도 제기됐지만 법원이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방역패스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지휘 행위’에 대해선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법원의 판단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제주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방역 패스가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정부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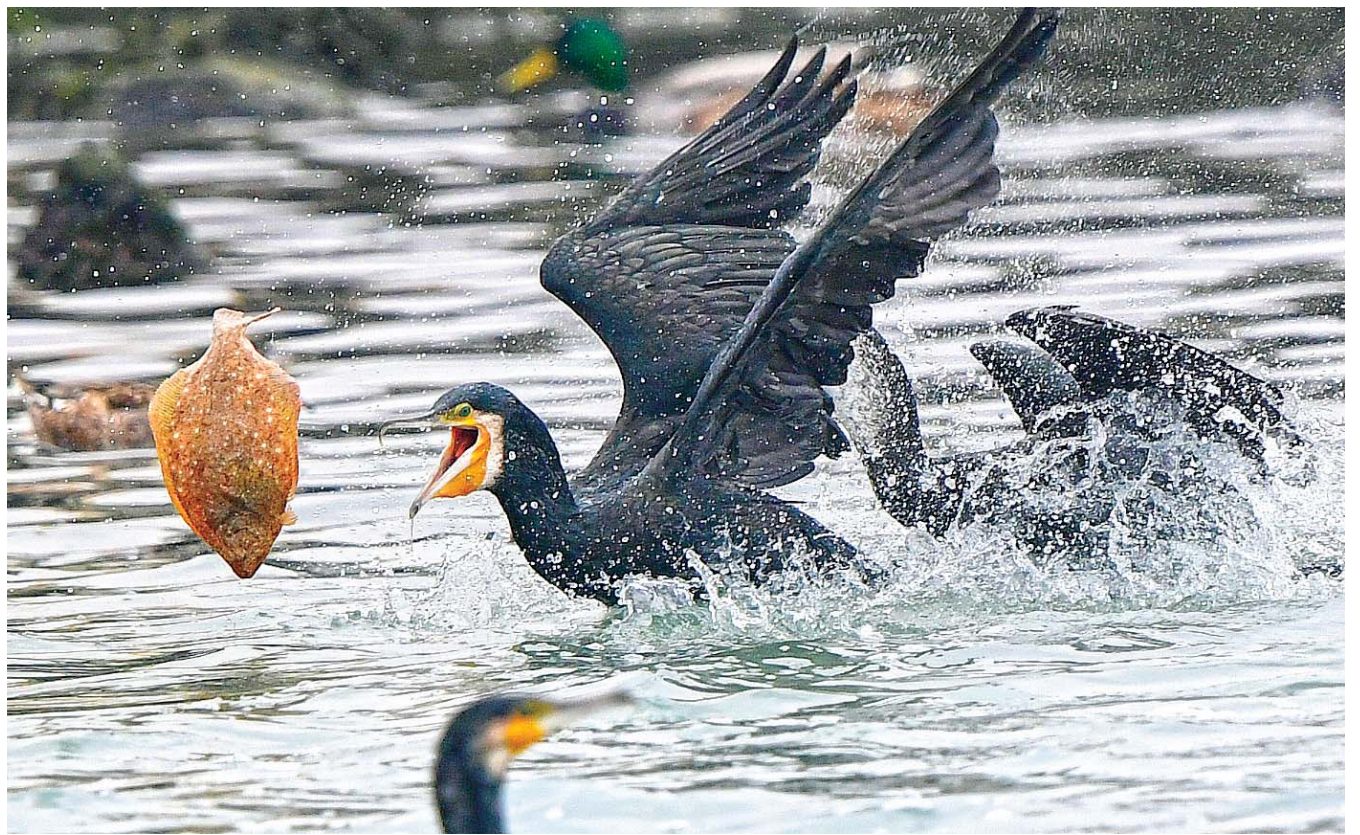
방역패스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제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설 연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대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도 제주에는 예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나’는 질문엔 “방역패스 지침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옳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결정하면 우린 따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학원과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 2층을 제외한 상점·마트·백화점 등 15종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이건 내거야...” 15일 제주시 한경면 금동리 해안에서 가마우지들이 먹이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코로나 감염비중 외부요인 ‘부쩍’

16일 오후 5시 기준 12명 추가... 전원 타 지역 거주자·방문

주말 휴일 이들 사이 제주지역에서 20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특히 이 가운데 90% 가량이 타 지역 방문객이거나 타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 비중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도내에서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데 이어 16일 오후 5시 기

준으로 12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4897명으로 늘었으며, 이날 들어서는 236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개별 감염 사례로 12명 모두 타 지역 방문객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에도 확진자 8명 중 6명이 타 지역 방문객 또는 해외 입국자

로 확인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감염이 주를 이뤘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도민 간의 접촉은 줄어든데 반해 방학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6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2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84.1%, 3차 접종률은 43.2%를 기록중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이번 주 큰 추위 없을 듯

이번 주 제주지역은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산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1mm 내외로 많지 않겠으며 제주 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 중산간 지역은 1cm 미만으로 예상된다.

다만 17일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며 아침 기온은 2-4℃ 낮 최

고기온은 8-9℃에 머무는 등 쌀쌀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제주 산지 도로에는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 차량 운행 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월동장구를 갖추야 한다.

19일부터는 맑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인 23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다. 김도영기자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사람으로 지은 집
사람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신촌 해안서 상괭이 사체 올해 7마리 죽은 채 발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해안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2시14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한 해안가에서 돌고래가 죽어있다는 신고를 접수,

제주파출소 순찰팀이 현장 확인한 결과 길이 160cm, 둘레 85cm, 무게 80kg 정도의 수컷 상괭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제주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에서 발견한 상괭이 사체는 총 7마리로 모두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지역에서도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처방이 시작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 ‘팍스로비드’가 지난 14일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에 할당된 물량은 70명 분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재 약국 각각 1곳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수령 약국으로 지정됐다. 치료제는 이날 중 지정 약국과 제주보

건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증 또는 중등증 격리 환자다.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에게 우선 처방된다. 투약시점은 증상 발현 5일 이내로, 무증상자는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이후 의사의 처방을 통해 지정 약

국에서 조제하면 양 행정시 보건소 직원이 환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로 처방이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 할당된 70명 분은 현 상태에서 한 달 가까이 처방할 수 있는 분량”이라며 “정부에서 마련한 치료제 대상자 제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급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물량 확보가 더 이뤄지면 지역 내 의원 급 약국까지 치료제 수령 약국이 확대되고, 치료제 배송 담당도 보건소 직원이 아닌 확진자의 가족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5 방진방수인증



(주)팜그린텍

공기교반기(60W, 130W)



- 특허 제10-2078975호
- 특허 받은 바람판 도출구조로 인해 공기흐름 사각지대 최소화

송풍팬(60W, 130W)



- 파이프 체결을 고정구가 있어 안정적이고 깔끔한 송풍팬 시공

환 풍 기

서터 환풍기(800W)



- 프레임 보강 서터 사용 내구성 강화
-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천장형 환풍기(330W)



- 특허 제10-2182942호
- 표면위로 도출되지 않는 기종으로 배운 고온공기, 유해가스 배출

하우스지킴이



- 고온, 저온 설정 범위초과시 휴대폰 알림 기능

결상 전원전환장치



- 특허 제10-2196685호
- 결상(단전)시 하우스개폐기 전원 자동제한 고온, 저온피해 방지 기능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